

수도권 규제 대폭완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과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환경 및 수도권 규제가 개선돼 17조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투자액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경유승용차 내수판매도 2005년부터 허용된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가 도입되고 논란을 빚었던 교육시장도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교육단체들이 지방 균형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라크전쟁과 북핵 위기로 가속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100억 달러 규모의 LG필립스 파주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무방류시스템 등 친환경기술 도입을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증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차 규격을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 현행 3개 거래소는 자회사로 편입키로 하고 2006년까지 체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고,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초 한국주택담보대출금공사를 설립, 향후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 가운데 70조원을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국제수지개선 차원에서 시·군·구 임야의 3% 이내로 억제돼 있는 골프장 건설 허용면적 기준을 5%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눈썰매장 등 부대시설의 면적제한과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섬 지역 감염성폐기물 처리 간소화

주사기나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섬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16일 환경부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집·운반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52개 도서에 위치한 보건지소 등 193개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총 12t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가 3월 초 152개 도서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든 도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육지로 옮겨 처리해야 하지만 기상악화시 처리기간(15일

이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선박을 타고 육지까지 운반하는 실정이며 선박운송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처리비용이 4만 7만원으로 육지에 비해 20배 이상 드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환경청, 약취배출업소 기술지원

경인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15일 시화·반월공단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지금까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 화학·피혁·금속 등 약취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청은 모두 100개 업소를 선정, 해당업체의 환경 현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술지원 요원을 상주시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기업별 유해물질 배출량 공개

기업별 유해물질 배출량이 모두 공개된다.

환경부는 독성과 잔류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또 농약과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공장 등과는 달리한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오염원)의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현행 80개에서 160개로 대폭 늘리고, 조사대상 기업을 종업원수 50인 이상 사업장(23개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기업이 배출하는 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인 디클로로메탄과 발암성물질인 톨루엔, 신경장애 물질인 크실렌 등 3개 물질이 전체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지역 지정 추진

인천의 남동산업단지 지역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치가 적용되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산업단지 인근의 연수지구,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산업단지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보전법상의 환경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시(市)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영향 부실평가 급증

지난해 대형 건설공사에 앞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전년 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실평가로 업무 정지, 등록취소 등 중 징계를 받은 업체수도 2.8배 증가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2000년부터 대폭 확대돼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환경영향평가가 대행건수는 2001년 191건에서 250건으로 늘었고 수주금액도 256 억원에서 295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가서부실작성, 기술인력부족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업체는 2001년 8개에서 지난해 22개로 크게 늘었다.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자연 토양 생태분야 기술 인력 배출을 위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 기술사, 환경생태기사 등 6개 신규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환경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연·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환경관련 자격증 6개 신설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자연 토양 생태분야 기술 인력 배출을 위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 기술사, 환경생태기사 등 6개 신규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환경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연·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폐기물 부실 위탁업체 처벌

앞으로 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방치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치 폐기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업체의 적정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위탁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촉매 관련 특허출원 활발...특허청

폐수처리, 대기정화 등의 환경시스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촉매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광촉매와 관련된 특허출원 현황에서 지난 98년에는 81건에 불과했지만 99년 134건, 2000년 209건, 2001년 200건, 2002년 21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광촉매가 실내외 장식재와 벽지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각 업체로부터 환경관련 소재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정연료 사용사업장 규제 완화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1~5종으로 이뤄진 사업장 구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1종사업장 307개소 가운데 52개소가 2종으로, 2종 사업장 613개소 가운데 168개소가 3종으로 바뀌는 등 총 2천259개 사업장 중 602개 업체가 등급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던 LNG, LPG 사용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개소에 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입지제한

환경부는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용량 기준에서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연료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연료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입지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던 LNG와 LPG 사용 사업장은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오수처리시설 제조 판매 단속

상수원오염 예방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불법 제조 판매에 대한 합동단속이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실시된다.

지난 4월 17일 환경부는 금년을 '오수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삼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매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조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신기술 검증 비용 절반 국고지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박종환 부장)은 환경신기술의 개발·보

“

환경부는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종에 국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정하고 배출허용치를 설정해 산업폐수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

급을 촉진하고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자 환경신기술평가의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실용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고 모집은 분기별로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30일까지 신청한 업체에게는 환경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간암을 유발하는 클로로포름과 비닐클로라이드 등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종에 국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정하고 배출허용치를 설정해 산업폐수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특별대책구역과 특정수질입지제한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 지역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물어 왔다.

유해물질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산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화학물질은 1만6천여종이지만 정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카드뮴과 시안, 비소, 구리 등 17종의 화학물질과 금속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해 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27종, 미국은 126종, 유럽연합은 144종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한적으로 설정·규제해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골프장 오수, 질소·인 함량 상수원수 부적합

경기도내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수(汚水)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질소(N)와 인(P) 함유량이 상수원수와 농·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61개 골프장에서 배출된 오수의 총인 및 총질소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상수원수 및 농·공업용수 기준보다 높았다.

조사는 골프장 주변의 오염물질 유출 현황 및 특성파악을 위해 골프장의 오수

처리수 및 최종유출수 중 총인, 총질소의 분기별 평균농도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오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오수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과 질소 함량이 높아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하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 폐기물업체 15% 관련법 위반

경인지방환경청은 올들어 관내 608개 지정 폐기물 관련업소를 점검해 15%인 92개 업체에서 각종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4월 9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보관기준 위반 61건, 처리계획변경확인 미이행 12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기타 17건 등이다.

경인환경청은 이들 가운데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7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03년도 실행계획 확정공고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일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도에 추진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에 총 42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에너지정책 및 보급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형사업인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금리 인하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는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침체돼 있는 재활용

업체의 창업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 5.33%에서 4.48%로 인하했다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재생공사 관계자는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경영 개선과 창업·설비투자 업체의 조기 경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민원 대기·폐기물 분야가 61%

작년 한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민원

“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일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도에 추진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에 총 42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가운데 대기·폐기물 분야가 전체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전년보다 10% 늘어난 2만1천49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폐기물 및 대기분야 민원이 1만3천14건(61%)에 달했다.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관리제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역 및 개별 사업장별로 감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

된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지난 4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공장 등 사업장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과 사업장별로 규제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 폐암 발생의 원인물질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도입

울산시는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관리 우수기업체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운영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상 기업체는 공단내 478개사와 공단 외 27개사 등 505개사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한 업소이다.

환경마일리지 부여는 연간 1회 평가 후 마일리지를 일괄 부여하며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1차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2차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최종 확정한다.

낙동강권역 환경오염업소 47곳 적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등 낙동강권역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들어 지난달까 지 낙동강권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8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이중

47곳을 적발, 검찰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유형으로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9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4곳,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및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가 30곳이었다.

특히 낙동강환경청은 적발된 업소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미원상사취를 비롯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은 송원칼라취 등 29곳은 낙동강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환경청은 “낙동강권역의 환경오염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감시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수원 보전지역이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배출업소나 문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환경청, 환경오염 사업장 8개 적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17일부터 13일 동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환경을 오염시킨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최근 2년간 3차례 이상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강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대기 자가측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H, S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해 경고 등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사항이 경미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LG전자, 유럽 환경규제 강화 대응책 마련

LG전자가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LG전자는 “EU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각종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

LG칼텍스 정유 여수공장이 국내 최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누출 정도를 분석해 보수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인 LDAR(Leak Detection & Repair)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한편 환경 친화적 제품의 앞선 개발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전략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첫 LDAR 시스템 구축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이 국내 최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누출 정도를 분석해 보수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인 LDAR(Leak Detection & Repair)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회사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VOC 누출 우려가 있는 밸브나 배관 연결 부등 공장 안 4만7천여 지점(포인트)에

대해 상근직원 10명이 매일 측정기로 점검한 누출량(데이터)을 입력받아 기준치 초과 여부 등을 분석, 보수 필요성을 알려주는 장치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억3천만원을 들여 LDAR 가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 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점검 대상 포인트를 선정하는 한편 공정별 시험가동을 거쳤다.

공장 관계자는 “3년 가까운 시험 가동으로도 VOC 누출량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었던 만큼 본격 가동되면 더욱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누출량을 기준치 이하로만 유지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출이 거의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코닝, 용수재활용 37억원 절감

삼성코닝은 수원과 구미사업장에 설치된 오·폐수정화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00만t의 용수를 재활용, 3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코닝은 브라운관용 유리표면 연마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식당, 기숙사 등에서 사용되는 생활용수 등 하루 필요 용수량이 3만3천에 이르며 비용도 49억원에 달하는데 작년의 경우 매일 2만5천t의 물을 재활용, 75%의 재활용률을 기록했다.

지난 9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삼성코닝 오·폐수처리 시스템은 미생물과 모래를 이용한 침전법, 역삼투압 방식 등 수차례 정화과정을 거쳐 오·폐수를 1급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삼성코닝이 하루에 재활용하는 용수량 2만5천t은 1.5 페트병 1천66만6천병과 같고 성인 6만4천여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